

이합집산 · 구조조정으로 유통의 지각변동 예상된다

2002년 서점유통업계 전망

올해 서점유통업계는 어느 분야보다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형서점들이 분점을 개설하고 지방진출을 꾀하는 한편 온라인 서점들의 매출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중소형 서점들의 어려움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전산화 및 물류사업 위주의 전략으로 유통업계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물류사업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창고.

올해 서점유통업계는 격변과 진통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그 변화의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유통업체나 대형 서점들도 올해 주요 사업계획의 결정을 법안 통과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서점유통업계에 미칠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만약 대형서점들이 분점을 더욱 늘리게 되면 생존력을 갖춘 중소형서점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통 전산화시스템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중소형 유통업체들은 이합집산의 과정을 겪으며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 향배에 촉각 곤두세워

'출간된 지 1년 이내의 도서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은 현재 국회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거듭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 서점들은 국회에 청원하는 등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온라인 서점을 제외한 출판계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출판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온라인 서점들의 과도한 할인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중소형 서점 수가 대폭 감소하는 한편 영세출판사의 폐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상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서점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는 있지만 문화관광위원회 소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 이후로 몇몇 주요 사업계획의 결정을 미루고 있던 하지만, 대형서점 관계자들은 올해 대형 서점 매출 신장율을 대체로 20% 안팎으로 내다봤다. 대형서점들은 온·오프

라인을 동시에 활용해 거기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매출로 연결시키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종로서적의 경우, 지난해에는 북새통과 제휴해 온라인서점을 운영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제휴관계를 마감하고 독자적으로 쇼핑몰과 문화사업을 연계한 종합사이트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다. 2001년 대형서점의 매출은 대체로 2000년 대비 10~1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서점 관계자들은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종로서적의 경우 12~13% 신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매출이 늘었다기보다는 정가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종로서적 관계자는 분석했다.

대형서점의 영토 확장에 밀리는 중소형 서점

지난해 교보문고와 영풍문고는 각각 분점을 개설하며 영토 확장에 나섰다. 교보문고는 지난해 대구, 대전, 성남 등에 분점을 개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부천에 분점을 열었다. 영풍문고도 1999년 영풍문고 강남점을 열고 지난해 영등포점을 개점했다.

올해도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의 분점 개점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문고측은 지난해 문을 열기로 계획했던 부산점이 부산 중소형서점의 반발로 올해로 미뤄지긴 했지만, 꾸준히 지방진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문고측은 지방진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분점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로서적은 분점개설이나 지방진출보다는 시설 유지보수에 힘을 기울이는 등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중소형 서점들에게 올해는 고난의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이후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중소형 서점은 2000년 3,357개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2,900여개로 약 46% 정도 감소했

다. 이 같은 감소추세는 대형서점의 분점 개설, 온라인서점의 할인 판매 등의 영향으로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그러나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이 통과되고 출판유통이 안정되면 중소형 서점도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임종은 사무국장은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출판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서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서점들 사이의 인수합병이 거론되기도 하면서 소형 서점끼리 모여 공동구매 형식으로 도매서점과 거래하는 등 중소형 서점들도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온라인 서점 신장세 지속될 듯

오프라인 서점에 비해 온라인 서점들은 2001년 한해 매출이 급격히 늘었다. 예스24, 알라딘, 모닝365 등 주요 온라인 서점들의 지난해 매출신장률은 300~350%로 추산된다. 온라인 서점의 시장규모는 약 1천8백여억원 정도다. 전체 출판시장 규모가 3조원이라고 예상했을 때 이들 온라인 서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 정도. 인터넷 시장의 팽창에 힘입어 올해는 출판시장 점유율이 10%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온라인 서점 관계자들은 예측한다. 한편에서는 이들 온라인 서점의 매출 성장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협의된 기준 없이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바탕으로 한 매출 올리기 경쟁은 결국 공멸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서점측은 협의보다는 자율적으로 시장질서가 잡혀간다고 말한다. 예스24 강병국 이사는 "현재 최고 할인율은 30% 정도다. 이것은 시장의 힘에 의해 조정된 결과"라고 말했다. 온라인 서점들은 올해 예스24의 POD 사업 본격화 등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는 한편 콘텐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매유통업체들도 다른 오프라인 서점들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만족할 만한 매출을 올리지는 못했다. 한국출판유통이 24%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송인서적이 10%에 머물러 대체로 유통업체의 매출신장률은 10~20%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청용서점의 부도로 또다시 유통대란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한 관측들이 속출했지만, 유통업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정도 매출 신장률을 보인 것에 안심하고 있다.

출판유통전문가들은 2002년으로 접어들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바로 도매유통업체라고 말한다. 한국출판유통의 경우 우 초 웹베이스물류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것이 완성되면 인터넷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도 물류 현황을 살필 수 있고, 필요한 물류작업도 바로바로 진행시킬 수 있다. 현재 이 시스템을 300개 거래서점에 설치했고 올해 안으로 400~500개 서점과 150개 출판사에 설치할 계획이다. 도매사업비중을 30~40% 정도로 확장해가는 한편 물류사업비중을 60~70%로 강화해 출판사, 소매서점, 온라인서점 등 3자물류 개념으로 마케팅

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출판유통은 올해 과주에 1,100평 규모의 물류센터 착공에 들어간다. 송인서적도 지난해 매장을 능동에서 상봉동으로 이전했고 전산화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산화 서두르고 물류사업 강화하는 도매유통업계

지난해 구성된 출판유통현대화 추진위원회의 사업도 점차 구체화돼가고 있다. 출판유통프로젝트는 문화관광부 지원 30억원, 민자유치 30억원 등 총 60억원의 예산으로 3년간 진행된다. 올해는 1차년도로 1월 말까지 미국에서 상용화된 ONIX 서지교환코드를 기반으로 한 공용데이터베이스 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한두달 정도 시범운영을 한 다음 4~5월부터는 이 코드를 상용화하게 된다. 이미 교보문고, 영풍문고, 종로서적, 한국출판유통, 한국출판협동조합 등 메이저급 도소매상들 사이에 표준화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이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서점은 물론 독자들까지 도서의 서지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지난해 출판사, 서점, 독자를 회원으로 확보해 이들을 직접 연결시키는 통합문화네트워크의 신개념 유통회사로 떠오른 북새통은 내년도에 제휴폭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현재 120여개 서점, 50개 출판사, 25만명의 독자를 제휴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올해는 서점도 200여개로 확대하고, 매출액 100위 안의 출판사들을 회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독자회원도 50만명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한편 북새통은 물류시스템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1월 안에 정식가동할 예정이다. 북새통이 예상하는 올 매출신장률은 200% 정도다.

출판영업인회의의 손달진 회장은 올해 서점유통업계를 내다보면서 "자연적으로 시장이 정리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자기 갱신의 능력을 갖춘 업체는 체질을 강화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회장은 대형서점들의 계속되는 분점 개설과 대형유통업체들의 전산화 등을 예로 들면서 2002년에는 서점유통업계의 변화가 점점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판사들은 앞으로 데이터가 투명하고 지불이 확실한 서점과 거래하려 할 것이다. 출판사들의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소도매서점들의 통폐합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서점수가 적어진다고 해서 책의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구멍가게식의 안이한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점은 사라질 것이다. 시장 논리에 의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손회장은 또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제도권이 마련한 제한선 안에서 서점유통업체들이 경쟁하게 될 것이다. 자체적으로 조정을 거듭하면서 생산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근 기자